

영암 F1 D-7



■ 대회 개최 의미와 효과



하늘에서 바라본 영암 서킷 전경. F1대회 개최로 전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년 끌어온 J프로젝트 결실 향후 7년간 1조8천억원 효과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 코리아 그랑프리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는 점 이외에도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7년 끌어온 J프로젝트 첫 결실= F1 경주장은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영암군 산호읍 삼포리 일대 428만9000㎡의 부지를 모터스포츠 복합 레저도시로 조성하는 삼포지구 개발

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전남도는 F1 경주장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4421억원을 투입, 오는 2021년까지 F1 경주장과 연계한 연구 및 교육시설, 체육·마리나시설을 조성해 동양권 최고의 모터스포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용지(15만3459㎡)와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을 갖춘 방사형 신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는 몬테카를로를 연상시키는 자족형 신도시로

전세계 시청자 6억명 한국 국가 브랜드 쏙

전남 인지도 높이고 영암 국제도시 발돋움

달바꿈시킨다는 것으로, 결국 F1 경주장 건설은 지난 2003년 밀그램이 그려진 이같은 삼포지구 개발 '청사진'의 첫 결과물인 셈이다. 인구 6만4000명 수준의 작은 소도시인 영암도 F1대회를 계기로 싱가포르, 상하이, 말레이시아 세광과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F1 도시'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도는 향후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삼포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에 본격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경주장 건설을 계기로 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 6억명 시청하는 F1 경제 효과=F1 대회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유명하다. 전 세계 188개 나라에 TV로 중계되며 시청자만 6억명에 이른다. 경주장 건설 및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경제효과도 엄청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F1 경주장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만 6659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는 3602명, 취업유발효과 489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F1경주장이 서남권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특히 해낼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내놓은 '2010~2016년(7년) F1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7년간의 생산유발효과가 무려 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매년 257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유발

효과 43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04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 7994명 등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치로 나타난 것 외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전남의 위상과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및 부품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발효과 43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604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 7994명 등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치로 나타난 것 외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전남의 위상과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및 부품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① 레이스 어떻게

60주년 맞은 올 F1, 3월~11월 19회 경기 3일간 연습-예선-결선 거쳐 챔피언 가려

앞으로 1주일 남았다. 1주일 뒤면 한국이 자동차 강국의 보증수표라는 F1(포뮬러원) 그랑프리 개최국으로, 조그만 소도시 영암이 국제적인 'F1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고막이 터질 듯 강렬하게 귀속을 다가오는 엄청난 엔진 사운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머신 뒤로 올라오는 타이어 타는 냄새 외에 무슨 매력이 전세계 관람객들을 모이게 하는 걸까.
◇왜 F1(포뮬러원)인가=포뮬러(Formula)는 자동차를 뜻하는 게 아니다. 경주용 차량이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의미하지만 나중에 경주용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됐다. 현재 F1 운영 주체인 국제자동차연맹(FIA)은 지난 1946년 경기 규칙을 통일한 뒤 1950년 첫 F1 대회 격인 '월드챔피언십'(World's Drivers' Championship)을 열었다. 이때부터

F1의 역사가 시작됐다. FIA는 '세계 최고의 경주'라는 의미로 숫자 1을 붙여 F1 그랑프리를 개최했다. 60주년을 맞은 올해 F1은 지난 3월 14일(결승전 기준) 바레인을 시작으로, 11월14일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19회로 구성된다. 한국대회는 17번째다.
◇레이스 어떻게 진행되나=22일부터 3일간 펼쳐지는 일정 중 첫날인 22일은 연습 주행, 23일 예선, 24일 결승 레이스가 펼쳐진다. 예선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첫번째 예선전에서는 12개팀 24명의 선수가 20분 동안 자유롭게 레이스를 펼치며, 기록은 전체 기록의 절반이 아닌 랩(경주장 한 바퀴) 최고 기록을 사용한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하위 7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17명의 선수가 15분

동안 두 번째 레이스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다시 7명을 기록 순으로 탈락시킨다. 마지막 예선에서 남은 10명이 10분 동안 레이스를 펼쳐 결승 레이스 출발 순위 1~10위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폴포지션'은 결선 출발 라인 맨 앞에 선다는 의미다. 결선은 24명의 선수가 예선 성적에 따라 출발하며 정해진 거리를 가장 빨리 달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 대개 3~7km의 서킷을 44~78바퀴를 돌게 되며 2시간 이내에 경기가 끝나야 한다. 한국 대회는 5.615km의 서킷을 55바퀴 돌아야 한다. 대회마다 1위부터 10위까지 25·18·15·12·10·8·6·4·2·1점씩 승점이 주어지고 시즌 뒤 합계 점수로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컨스트럭터) 챔피언을 가린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영암서 보게 될 F1 스타 드라이버



마크 웨버, 올 챔피언 유력... 'F1 황제' 슈마허도 복귀 경기

연봉 1천만달러에 100여차례 F1 머신을 타는 세계적인 드라이버들이 영암에 온다. 14일 F1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4일 영암서킷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 위해 F1 드라이버들이 오는 21일 영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팀 각 2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F1 드라이버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선수는 미하엘 슈마허(40·독일)로 7차례나 월드챔피언에 오르면서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과거 페라리팀에서 포뮬러원의 황제로 군림했던 그는 2006년 최정상의 자리에서 은퇴했지만 4년만인 올해 메르세데

스팀의 드라이버로 복귀해 활약하고 있다. 영암서킷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에 동참한 레드불팀의 마크 웨버(34·호주)와 세바스티앙 베텔(독일)은 현재 F1드라이버들 중 인기 최정상급의 선수들이다. 지난해 시즌 종합 순위 4위에 올랐던 마크 웨버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올해 월드챔피언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최연소 F1드라이버로 올해 23세에 불과한 베텔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페라리팀의 페르난도 알론소에 이어 3위를 기록중이다. 맥라렌팀의 젠슨 버튼(29·영국)과 같은 팀의 루이스 해밀턴(25·영국)도 주의깊게 봐야할 선수들. 버튼은 올

해 레드불팀과 페라리팀에 밀려 선두권에서 밀려나 있지만 누가 뭐라해도 지난해 시즌 월드 챔피언이며 해밀턴은 2008년 23세의 나이로 F1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을 기록해 이번 한국대회에서 이들의 활약에 따라 선두권이 엇갈릴 수 있다. 이밖에 유럽과 남미 출신 드라이버들이 활약고 있는 F1에서 HRT팀의 인도출신 드라이버 카룬 찬둑(25·인도)이 있으며 자우버팀의 일본 출신 카무이 고바야시 등도 눈에 띈다. 이들 드라이버는 대부분 21일을 전후로 입국해 오는 22일이면 영암서킷에서 스타 넘치는 레이스를 선보이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www.kogas.or.kr

광주일보
한국가스공사 경제살리기 캠페인

에너지 절약은 가장 쉬운 재테크입니다.

난방18℃ / 냉방28℃ 유지, 가스불은 반으로, 목욕물 받아쓰기, 쓰지 않는 플러그 뽑아두기
가장 쉬운 재테크,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계 경제를 웃게 합니다.